

소방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기본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희[†] · 최규출* · 정상**

서울소방재난본부[†], *동원대학, **한세대학교

Fire Museum and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Joe, Sun Ho[†] · Choi, Kyu Chool · DJeng, Sang**

요 약

현대사회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고위험사회로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추세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재난으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험학습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 관심의 변화는 박물관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소방유물에 대한 관심과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박물관 설립에 관한 조항이 소방유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비록 짧은 소방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유물을 찾아 보관과 전시를 통한 체험 학습장으로 박물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소방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전시에 필요한 소방유물을 분류하여 전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하였다.

Keywords : 박물관, 소방유물(박물),고위험사회(higher risk society)

1. 서론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워졌으며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권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등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고위험사회(higher risk society)로 치닫고 있다. 전쟁과 테러와 같은 파괴성 높은 위협을 제외하더라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환경파괴,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같은 위협요인들은 날로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위험사회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으로 2004. 6. 1 소방방재청을 신설·개칭하였다. 또한 각계각층에서는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반성과 대책을 수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가리켜 “지식정보화시대”는 또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한다. 문화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화 또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급문화상품으로서 외화획득의 수단도 되는 일석이조의 『고부가가치·무공해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교과서의 그림으로만 보던 작품을 박물관에서 실제로 보고 난 뒤에 찾아오는 감동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박물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정신적인 것 외에도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 기술, 예술 등 크기의 대소에 관계없이 유물 하나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는 사실은 다양하다. 특히 외국에서는 국·공립박물관 뿐만 아니

라 「가족사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고 문화적 측면에서 선진화를 가능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는 8,000여개, 중국에도 2,0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250여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인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 그동안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소방 유물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소방박물관의 설립의 논거와 그 기본방안 등을 그려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의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박물관의 기능과 구성요건 등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개요로서 박물관에 관한 일반론과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과 4장에서는 소방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기본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방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설립의 기본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조감을 하고자 박물관과 관련한 국내·외의 문헌과 자료 그리고 설립과 운영사례를 연구하였다.

2. 박물관의 개요와 현황

2.1 박물관의 정의

박물관은 고고자료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문화가 집적된 곳이다. 사전적의미로 박물관(博物館, Museum)은 “동서고금의 고고학 자료와 미술품,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에 전시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에서는 박물관을 “문화·예술·학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현장에는 박물관을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는 박물관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인 정의를 근거로 박물관의 기능과 업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적: 문화·예술·학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증진
- ② 자료: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 ③ 기능: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2.2 박물관의 구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서는 박물관을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이밖에도 박물관자료나 장소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분류(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 국립박물관(국가), 공립박물관(지방자치단체, 사립박물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학박물관(대학)
- ② 박물관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 (㉠)종합(일반)박물관: 여러 분야의 자료를 대상으로 함, (㉡)전문(특수)박물관: 시대·용도 등 일정주체를 가진 한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함
- ③ 시설에 따른 분류: (㉠)실내박물관: 자료보존·전시·관리하는 건물로 벽과 지붕이 있는 박물관, (㉡)야외박물관: 자료보존·전시·관리하는 건물로 벽과 지붕중 어느 한가지 이상이 없는 박물관
- ④ 박물관자료의 지역에 따른 분류: (㉠)전세계를 망라하는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 (㉡)한 국가내의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 (㉢)일정지역내의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
- ⑤ 이용계층에 따라서는 공공박물관, 학교박물관, 아동박물관, 산업박물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박물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 구분은 점차 퇴색되고 있다.

2.3 박물관의 역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행사의 개최, 자료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기타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통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①문화인프라(INFRA)의 형성: 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고 있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의 충족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박물관은 사회적 공동자산으로서의 문화적인 인프라이다. ②유물 및 문화적 자료의 발굴과 보존: 박물관의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③학술적·과학적인 연구 및 정보의 제공: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학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역사나 사회, 과학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추정하여 정보를 창출한다. 실제로 박물관에서의 연구 성과가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각종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의 경우에는 10개 학예연구부서에서 3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50여권씩 학술논문지를 발간하여 학술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④문화적·교육적인 욕구충족의 기회 제공: 박물관은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삶의 체취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모의 흔적이 편편마다 스며있어 방문객을 정겹게 맞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자료도 단순한 진열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생기도록 배열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특별기획전, 이동전시, 대여전시, 학술강좌 등의 행사를 기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⑤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박물관은 관광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좋은 수단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코스로서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2.4 박물관의 종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5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문화의 집·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하여 박물관의 대상을 기능이나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등록요건을 정하면서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서 제1종과 2종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글의 목적상 미술관·동물원·식물원 그리고 수족관을 제외하고 박물관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박물관의 구분(미술관·동물원·식물원·수족관은 제외)

구분	유형	소장자료	전문직원	시설규모
1종	종합박물관 (General Museum)	각분야별 100점이상	각분야별 1인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면적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시설 6.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전문박물관 (Specialized Museum)	100점이상	1인이상	1. 100㎡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시설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2종	유물관	60점이상	1인이상	1. 82㎡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연구실·자료실·도서실· 강당중1개시설 4.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사료관	60점이상	1인이상	상동
	전시관	60점이상	1인이상	상동
	자료관	60점이상	1인이상	상동

* 이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박물관의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 자료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를 글의 목적에 맞도록 재정리하여 작성

2.5 박물관의 구성요소

①인력: 인력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인적요소(휴먼웨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우선 총책임을 담당하는 박물관장(directer)을 비롯하여 사무요원, 보존요원(conservator), 안전요원, 교육·홍보담당자(educater·publisher)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큐레이터(학예사)가 있다. 박물관장은 박물관 업무수행진반에 걸쳐 정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박물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요원은 큐레이터(Curator), 보존처리요원, 교육·홍보요원 등이 있는데 큐레이터는 학예관련 사무에서 시작하여 자료수집과 교육, 전시구성, 섭외 등의 박물관 업무추진, 운영과 기획까지 최일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박물관학(Museology)과 박물관기술학(Museography)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기술에 정통해야 한다.

②자료: 박물관자료는 박물관의 기능수행을 위해 모여지는 모든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전시자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료, 모사품, 보조자료 등 모든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표2. 박물관 자료의 종류

구분	종류	목적
기능별	보관자료	실물로서 1차적으로 전시에 이용
	연구자료	전시연구활동위한 수집 보관품
	보급자료	보급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참고자료	도서, 사진 등 학예사 활동관련 자료
형질별	직접자료	실물로서 기능상 보관자료와 동일
	간접자료	모사품, 사진, 필름 등 실물설명을 위한 자료

또한 수집된 박물관 자료는 카드나 목록을 작성하여 대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며 실물과의 대조를 편하게 하고 연구와 전시·격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데 박물관의 성질에 따라 분류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다. 박물관자료는 목적에 따라 지역별·물질별·등급별·용도별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결국 박물관 자료는 세분하여 분류하되 운영목적상 이를 조합하기도 편리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적

정한 방법에 따라 자료가 분류되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목록과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작성과 검색기능을 잘 활용하면 다양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③건물:박물관의 건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물론 기존건물을 증·개축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할 수도 있겠으나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부지선택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교통, 안전, 확장계획, 부대활동 소요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 건축은 관람객과 박물관 관리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간용도에 따라 대개 관리운영공간(전시실, 수장고, 편의시설 등), 조사연구공간(연구실, 실험실, 도서실 등), 교육보급공간(강당, 영상실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요즘은 박물관 주차장과 진입로, 표지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도 건물은 전시실 사이의 공간배치나 기획전시장 등 전문적으로 기술과 예술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신축과 증·개축을 불문하고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표3. 박물관 건축시 고려할 사항

관람객의 입장	박물관 관리자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 이동로와 편리한 관람동선 - 전시효과 - 적당한 면적 - 휴식시설 : 휴게실, 정원, 의자 - 관리자에게의 접근용이성 - 쾌적한 환경 : 온·습도, 공기 - 편의시설 : 화장실, 식당, 어린이놀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근무환경·작업공간 - 편리한 전시장 및 물품관리 - 합리적인 전시장 동선계획 - 필요공간 및 설비의 확보 : 반출입, 기록, 격납, 포장·해포 - 건물관리에 용이할 것 -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안전, 환경 등

2.6 박물관의 전시활동

박물관자료의 전시가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은 박물관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요기 정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활과 문화, 역사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전시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보고 난 다음에는 교육적인 성과가 얻어지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박물관의 모든 역량이 전시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관람객이 안락하고 편안한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요즘은 기본적인 상설전시 이외에 보다 우수한 전시를 위한 기획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특별기획전이나 순회, 대여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전시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여 전시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포장이나 수송안전 등에 신경을 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만일의 돌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표4.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실 배치시 고려요인

물리적 측면의 조건	감성적 측면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품(진열장)의 위치와 높이 - 전시품의 배치 - 배경의 색상과 전시품의 조화 - 조명의 밝기와 각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과 휴게공간 - 온도와 습도 - 조명과 채광 - 전시장 색상의 전체 분위기 등

2.7. 박물관의 설립 및 등록

설립 주체별로 박물관의 설립 및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립박물관: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내역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립박물관:(-)설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내역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등록:신청서, 시설명세서, 박물관자료목록, 자료내역서, 전문 직원명단, 이력서,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다.

③사립박물관:(ㄱ)설립:사업계획서, 토지조서, 건물조서, 도시계획사실관계(국토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위치도, 개략설계도서, 박물관자료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다. (ㄴ)등록:신청서, 시설명세서, 박물관자료목록, 자료내역서, 전문직원명단, 이력서,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시설소유(임차)증명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문화관광부에서 처리)한다.

3. 소방박물관 설립의 필요성

소방기본법 제5조에는 소방박물관 설립의 목적을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박물관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한국소방의 정체성 강화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과 국권침탈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즉 이를 환언하면 역사가 없는 민족은 터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은 그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최적·최고의 장소라는 데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약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는 곧 박물관을 가질 수 없는 민족은 독립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소방박물관도 마찬가지다. 소방박물관의 존재는 일반인들에게 소방의 가치와 문화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인에게 자부심과 정체성(identity)을 갖게 할 것이다. 소방에 막 입문한 사람들에게 소방의 중요성과 역사, 문화를 교육시킬 때 백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소방박물관 견학이 소방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2. 소방자료의 보존

역사자료의 보존과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자료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진다. 박물관이 있으면 충분히 보존처리하여 진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창고나 사무실 한 모퉁이에서 굴러다니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방박물관이라는 보존창구가 있어야만 소방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자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다. 특히 소방차량과 같은 대형장비는 한 번 사라지고 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므로 지금부터라도 박물관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아울러 가치를 부여할 만한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소방박물관에 보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3. 우리나라 소방역사의 교육장

사건현장이나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소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상설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소방박물관이다. 특히 역사적인 사실이나 소방기기의 발전정도와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견문을 넓히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자료라고 해서 반드시 소방에 관한 교육적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보이는 불조심포스터만 하더라도 이 안에는 당시의 사회상이나 인쇄술, 디자인 수준 등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다. 소방자료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소방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소방에 있는 것이다. 소방박물관의 자료가 소방이 걸어 온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점이다.

3.4. 세계소방기관과의 교류

“I am a Fire Lieutenant at Fajoes Fire Department · · (이하생략)”로 시작하는 이 글은 1999년 가을 포르투갈의 한 소방관이 당시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보내온 편지의 첫머리이다. 이 편지의 내용은 국제소방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우리나라의 소방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연이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자국의 소방자료 뿐만 아니라 외국의 소방자료를 수집하여 국제적 수준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소방박물관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재 소방박물관(Fire Museum)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해외 소방과의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외국의 소방기관과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방안도 많다. 외국의 소방기관을 방문하면서 박물관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국가가 유일하게 한국 뿐 이라면 우리나라 소방을 선진소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 소방박물관 설립의 기본방안

4.1. 소방박물관 설립의 형태

그동안 우리가 흔히 생각해 온 소방박물관의 형태는 소방관서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국·공립 박물관 만을 생각해 왔으나 실제로는 설립방향이냐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양한 설립주체가 있을 수 있다.

①국립소방박물관: 소방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소방박물관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하는 형태. ②공립소방박물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설립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설립하는 형태. ③사립소방박물관: 사립 소방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안전협회나 소방산업기술원, 대학, 소방기업체, 개인 등 다양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설립주체의 기능에 맞는 특화된 소방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4.2. 소방박물관 설립추진 단계에서의 과제

소방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이에 필요한 기본 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박물관의 설립 유형중에서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설립추진을 가정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중심으로 이의 추진부서가 될 소방방재청의 입장에서 알아보려 한다.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건립과정을 살펴 본 결과 1985년 6월 28일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1988년 8월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건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실제 개관은 무려 14년이나 지연된 2002년 5월 21일 이었다. 이는 하나의 박물관을 설립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국립소방박물관의 설립의 추진에 있어서도 그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설립규모를 크게 설정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에 부딪혀 매우 오랜 시간동안 추진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계획에 비추어 볼 때 예산확보가 충분하다면 설립계획의 수립부터 개관까지 약 5개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예산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수장고를 확보하여 자료수집부터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박물관의 개관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의 차이는 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 설명의 측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이러한 어려움은 소방박물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상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3. 박물관 설립 추진 T/F팀 운영

박물관 설립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매우 많은 장애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의 중단이나 지연과 같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조직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덜 받고 업무추진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전담조직의 설립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물관 설립추진기획단은 추진업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하드웨어팀과 소프트웨어팀으로 구성되어 추진과정에서는 물론 개관시점에 이르러 결과물이 상호 결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 분야의 조화가 되지 않아 ‘형식이 없는 허울만 소방박물관’이라든가 반대로 ‘초라한 소방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양분야가 혼합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정기능을 부가하여 조직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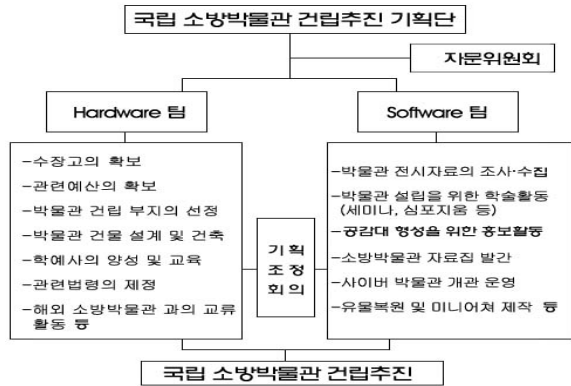


그림 1 국립소방박물관 설립추진기획단 편성(안)

4.4. 박물관 설립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방박물관이 설립되어 우수한 자료가 전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의 필요성에 대한 소방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각 기관이나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하는 참여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소장자들이 기증을 주저하게 되고 소장사실을 숨기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잘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의식에서 기인하게 된다. 소방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주가 되겠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활동도 매우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학술적인 결과물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설명자료를 제시할 때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세미나나 심포지움 등을 소방방재청이 주관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홍보나 학술활동은 관계된 주변으로 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활동이 해외 소방박물관의 소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 소방박물관이 어떠한 모습이고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소방박물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은 외국의 소방박물관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요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은 우리나라의 소방박물관 설립을 추진할 때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소방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5. 소방박물관 자료의 조사·수집·보존

박물관 설립에 관한 인력이나 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부공간에 전시할 자료가 없거나 수집된 전시자료의 가치가 대중에게 공개하기에 미흡하다면 개관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소방박물관 자료가 어디 그렇게 있을까? 할 수도 있겠으나 발굴노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매우 많다. 소방차, 완용펌프, 가솔린펌프, 마제 양동이, 불채, 갈고리, 수동식 사

이런, 청동종, 헬멧, 뱃지, 소방우표, 해태석상, 각종휘장, 제복, 포스터, 사진, 신문, 각종서적, 중요문서, 홍보물품, 외국소방자료, 소방기기 등이 면단위의 전통있는 의용소방대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각 소방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조사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소장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자료의 조사와 수집활동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박물관을 개관하더라도 전시자료가 매우 빈약해지는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소방관서 등 관부문 외에도 개인이나 소방기업체 등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일체히 조사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우려되는 것은 유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기증할 의사가 없어 소장사실을 감추거나 기증을 거부할 경우 조사와 수집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증하는 자치단체(소방관서)나 개인 등에 대해서는 기증자를 전시에 반드시 밝힘을 알려주고 기증자료가 다수일 경우 기증전시실을 별도로 마련해주는 방안들을 제시하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료조사와 수집은 향후 단계에서 추진되는 박물관 건축계획이나 예산의 확보를 위한 근거 설명 등에 필수적이므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개관전이라 할지라도 수장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를 분류하고 보존처리할 수장고는 선결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장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분류·복원·수리 등의 작업은 박물관의 개관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박물관 개관 준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물이 완공된 이후 바로 전시가 가능하여 개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소방박물관 자료 외에 외국의 소방박물관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각국의 소방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박물관이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도 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가 다양할 경우 각 대륙별 전시관이나 국가별 전시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4.6 소방박물관 전문가의 양성

소방박물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연구하며 전시장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소방역사와 관련분야에 정통하고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으나 소방공무원중에서 발탁하거나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4.7 소방박물관 시설의 확보와 관련법령의 제정

소방박물관 시설의 확보는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증·개축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설립주체에 따라 시설확보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시설 확보에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형박물관들이 처음 몇 번의 증개축과 이전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소방박물관도 현실이 허락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일단 개관하고 지속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괄적인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적인 방안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박물관 자료뿐만 아니라 그 건물자체도 훌륭한 볼거리가 되도록 건축하는 추세다. 따라서 신축일 경우에는 소방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되도록 설계하고, 개축시에도 이러한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적측면의 공간확보와 더불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제정이다. 박물관의 설립, 운영, 조직 등에 필요한 법규나 규정 등을 미리 준비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8 소방박물관 자료 도록 제작 및 사이버박물관 개설

공식 박물관 개관 전이라 할지라도 인쇄물로 만날 수 소방박물관 자료집의 발간과 사

이러한 공간으로 마련된 소방박물관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사업을 통하여 건립될 소방박물관의 시행착오를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도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때 책자로 제작된 자료집은 학술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이버소방박물관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3D영상을 사용한 가상현실공간을 사용하여 마치 실제 소방박물관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사업은 박물관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결론

1909년 창경궁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출발한 국립중앙박물관이 2005년 10월 28일 서울 용산에 새 건물을 건립하고 개관하면서 표방한 슬로건은 “한국이 보인다”이다. 마찬가지로 소방박물관을 관람하면 “소방이 보인다”. 이말은 역설적으로 박물관이 없으면 소방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나 외국소방관계자의 방문일정에 “소방박물관견학”이 들어있고 외국의 소방박물관과 ‘교류기획전’이 열린다든가 소방박물관 주최로 ‘어린이 소방교실’이 열리는 일이 결코 상상일 수만은 없다. 박물관은 이제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얼굴이며 기준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 그 속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박물관이 없으면 현재는 있을지 몰라도 그 뿌리(과거)가 없으니 발전(미래)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박물관의 기원이 수집가의 개인적 취미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교육과 민족의식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듯이 소방박물관 설립이 처음에는 산재해 있는 소방유물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설을 확장시켜 나가면 아마도 소방교육과 홍보의 메카로 그리고 소방의 정체성이 출발하는 기점으로 역할을 할 것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물관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향수에 젖고 여유와 휴식을 즐기며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박물관 설립을 위한 박물관의 일반적인 사항과 설립 필요성 및 기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이것은 극히 기초적인 부분일 뿐이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소방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연구와 몸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이 연구가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미미한 출발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와 관련자들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소방박물관이 한국 최고, 그리고 세계최고의 전문박물관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2000), 경기소방사
2. 교육철학사 편(2001), 박물관과 교육, 서울: 문음사
3. 김영관 외(2001),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관리(유물관리론), 서울: 서경문화사
4. 문화관광부(2003), 2004년도 문화정보화 촉진시행계획(안)
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2003), 서울역사박물관개관지, 서울역사박물관
6. 소방방재청(2004), 2004년도 주요통계 및 자료
7. 양현미(2004), 2003년도 박물관 미술관 정책 및 운영현황, 2004문예연감
8. 이난영(1996), 박물관학 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9. 이보아(2002), 박물관학개론, 서울: 김영사
10. 이영진 외(2000), 박물관 전시의 이해, 서울: 학문사
11. 이요셉(1994), 한국의 특수박물관, 서울: 세시
12. 정중수(2001), 민속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인류학회지 제34집 제2호
13. 한국법제연구원(2004), 대한민국헌법령집 제18권
14. 한의숙(2003), 박물관 견학이 공부잘하는 아이를 만든다, 서울: 오상
15. 행정자치부(2004), 2004소방행정자료및통계/행정자치부(1999), 한국소방행정사(증보판)

16. 홍성태 역(1997),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7. 강원일보, 2004. 7. 28/문화일보, 2004. 6. 23
18. George E.Hein(1998), Learning in the Museum, Routledge
19. Ivan Karp(1992), Museums and communities: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Smithsonian Books
- 20 The New York City Fire Museum,Adarew Coe(2003), FDNY: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Fire Department of New York City, Odyssey Publications
21. Tony Bennett(1995), The Birth of the Museum, Routledge
22. <http://meseum.seoul.kr>, <http://myungwan.chonbuk.ac.kr/culture/cul2005.htm>
23. <http://www.artsonline.oe.ke/yearbook/ilban/7-02.html>
24. <http://www.firemuseumnetwork.org>, http://www.kcaf.or.kr/zine/artspaper88_05/19880511.htm
25. <http://www.landmuseum.co.kr/img/gonggi/0817-1>.